

#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올해 함께 정진해야 할 신앙생활 표어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디모데후서 3:14)입니다. 말씀이 삶의 터가 되도록 배우기에 열심을 냅시다.
3. 다음 주는 제직 주일로 지킵니다. 제직은 집사를 포함 교회 안의 향존 직분자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4.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첫 월례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의논하고 계획안을 제출 바랍니다(찬송, 기도, 안건 토의).
5. 2020년부터 후보 모으기를 시작하고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 혹, 작년도 후보를 다 모은 성도가 있으면 다음 주까지 가져오시면 시상하겠습니다.
6.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카드 여분이 있습니다. 송구영신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한 장씩 뽑아가십시오..
7. 우리 교회 로고가 찍힌 수첩을 최광암 집사(휴무 안수 집사)가 기증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분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 금요 저녁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9. 교역자 수련회가 월(6일)- 수(8일)까지 로토루아에서 있습니다.
10. 오uckland 장로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조찬 기도회가 오는 11일(토) 오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 1월교회사역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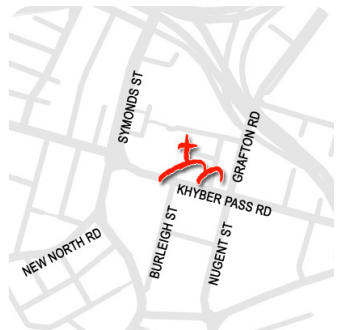
1월 5일 (주일)  
신년 주일  
1월 6-8일 (월-수)  
교역자 수련회  
1월 12일 (주일)  
제직 주일  
1월 26일 (주일)  
권사 기도회

## 1월 기도순서

1월 12일 (주일)  
김철재 집사  
1월 15일 (수)  
가정 예배  
1월 19일 (주일)  
박덕철 장로  
1월 22일 (수)  
가정 예배

## 1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철재, 정옥자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01호 2020.01.05

#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금요기도 금 7:00 p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금주기도 연합예배  
다음주일 권우석 형제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예배시작 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27:1-2,7	인도자
*찬송	64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550장	다함께
대표기도	-----	김병진 목사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3:13-17	인도자
찬양대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b>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b>	이태한 목사
찬송	199장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응답송	310장 (1,4절)	다같이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1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1일 - 15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 선교란

이번 주는 중앙아시아 K국 강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2020년의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에는 우리들의 소망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서, 설령 일치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뉴질랜드로 이동/** 저는 12월 중순에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예전에 청년부에서 함께 섬겼던 간사님 집, 제자 양육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의 가정에 신세 지고 있습니다. 두 가정의 따뜻한 배려에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교제했던 청년들, 교회 분들을 만나고 방문하면서 한달 일정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분, Jeanette의 흔적과 그녀의 가족/** 4년 전에 돌아가신 Jeanette의 묘와 그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24일에 가서 2박 3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남편이신 Noel은 재혼한 Ruth와 함께 여전히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 주셨고, 두 딸 부부와 손자들, 교회 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다른 두 자녀와 가족들은 각각 다른 도시와 영국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가서 못 만났습니다. Jeanette의 투병, 마지막, 장례 예배, 크리스마스 밤 둘째 딸 Tracey 집에서 그녀의 유품을 보면서 들었던 이야기 모두 슬펐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고, 기도해 주시고, 나누어 주셨던 Jeanette이 너무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연말과 새해 리트릿/** 지난번 시드니에 저를 만나러 왔던 그 자매에게서 고마운 선물을 받았습다. 수도원에서 피정(리트릿)을 하면서 연말과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이피어에 내려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시골의 자그마한 수도원입니다. 소박한 식사에 배고픔이 있지만 조용한 시간과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목장 지대) 곳에서 충분히 쉬고, 말씀 보면서 3박 4일을 보내고 내일(2일) 돌아갑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다른 동기가 아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전부인지는 많이 다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큰 힘이고 격려였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하르 드림

## 기도 제목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래서 경험할 수 있도록
-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매일 기도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도록

## 기도 제목

1. 진리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2.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3.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 나눔란

2019년 12월 29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그들과 결산할 새> 마태복음 25:14~30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며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으로 시작되는 본문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러했듯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에 어떨까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의 균등한 배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한없이 불공평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로마서 11:36) 모르기 때문입니다.

타국에 가는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25:15) 각 사람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일을 맡긴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고전 4:2)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으나(25:16-17)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도 잊고 사명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받은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돈을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1)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복음을(요한복음 8:32)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2) 수고와 희생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패턴을 바꾸는 일이 두려워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이는 마치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이(눅10:31) 수고와 희생을 원치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자기 것을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여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과도(마 10:22) 같습니다.

(3) 자기의 주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8) 하셨는데 좋은 복수의 하나님으로 오해했기에 여러 변명으로 자기의 악한 마음을 덮으려 한 것입니다(25:24).

(4) 불신앙 때문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 즉 주님의 재림과 결산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산일은 반드시 오는 것을 깨달아야만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합니다(25:30). 하나님의 정의는 균등하게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해야만 큰일을 맡기시는 것을 기억하고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다리며 사는 갈보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금주의 암송 말씀

디모데후서 3: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